



PacBio 이야기

산림 폐기물을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기

캐나다 펠릿산업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옛 격언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낭비가 없으면 부족이 없다'라는 속담은 물품이나 자원을 신중하게, 낭비 없이 사용하면 절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유래합니다. 목재펠릿 제조사인 Pacific Bioenergy Corporation (퍼시픽 바이오에너지사: PacBio)에 관해서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수십년 동안 버려지는 우듬지, 나뭇가지, 저급 통나무와 죽은 나무는 수확 후 벌목지에서 쌓아 태웠습니다. 주정부 산불법에 따라 이렇게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매년 봄가을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큰 연기 기둥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이 슬래시를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해로운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 공기도 오염시켰습니다.

PacBio는 섬유 공급 확장과 동시에 환경에 도움이 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목재 분쇄 개념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 2007년 프린스 조지의 제재소와 벌목회사, 그리고 지역 계약회사와 힘을 모았습니다. 초기에 새로운 기술과 과정을 받아들이는데 몇몇 계약사가 나서주었습니다.

그 이후 PacBio는 연소되어 없어져버렸을 167만 톤의 슬래시를 재생가능한 깨끗한 에너지, 목재펠릿 130만톤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PacBio의 펠릿은 BC주의 환경 자격 증명과 책임있는 섬유 사용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고객들이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시장을 찾았습니다.

PacBio의 사장이며 최고경영자인 John Stirling(존 스티링)은 "지난 13년간 산림에서 나온 슬래시 71천 트럭분량의 우드칩을 지역 공장으로 실어나르고, 지역 공기질을 높이면서 공급망 모든 단계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Stirling 사장은 "우드칩 트럭이 제재소와 펄프 공장 사이를 다니는 대신 비포장 벌목도로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라며 "슬래시를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귀중한 상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두 배워야했으며, 이는 슬래시를 처리하는 새로운 가공법을 뜻했습니다."

Excel Resources Inc.(엑셀 리소시스사)의 Keith Brandner(키스 브랜드너) 부장은 "인내가 필요했으나, 이 새로운 기회에 장기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임산업계는 BC주의 친환경 에너지 운동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Excel Resources는 일개 지역 업체가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산림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훌륭한 예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펠릿업계가 2027년에는 연간 약 5100만 톤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2019년 수요에서 40% 증가한 것입니다. 소중한 천연자원을 잘 활용하여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PacBio는 산림 섬유의 책임있는 사용과 매 단계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분쇄법을 약속하며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